

작년 수입차 판매 20만대 육박

전년보다 25.5% 폭발적 증가...역대 최고치

점유율도 2012년 10.0%서 14.21%로 늘어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판매량 1위



지난해 수입차 가운데 판매 1위, 3위를 기록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위)와 메르세데스-벤츠 E 220 CDI.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이 연간 20만대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수입자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신규 등록 대수 기준)은 19만6359대로 집계돼 전년 보다 25.5% 늘었다. 연간 수입차 판매량은 2013년 처음으로 15만대를 돌파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판매량 기준)도 2012년 10.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1월은 14.21%로 늘어났다.

지난해 최고판매 모델은 8106대가 팔린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이 차지했다. 이어 BMW 520d가 6546대로 2위, 메르세데스-벤츠 E 220 CDI는 5921대로 3위에 올랐다. 연간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BMW가 4만 174대로 가장 많았다. 수입차 단일 브랜드로서 연간 판매량 4만대를 넘어선 것은 BMW가 처음이다. 메르세데스-벤츠(3만5213대)와 폭스바겐(3만719대)도 3만대를 넘어 서며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우디(2만7647대), 포드(8718대), 토요타(6840대), 미니(6572대), 렉서스(6464대), 크라이슬러(5244대) 등이다.

연간 배기량별 등록 대수는 2000cc 미만이 10만7490대로 54.7%의 비중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입차 가운데 중소형이 강세임을 반영한다. 국가별로는 유럽 15만7796대(80.4%), 일본 2만4093대(12.3%), 미국 1만4470대(7.4%) 순으로 집계됐다. 유럽 차 가운데서도 독일차 비중이 69.4%로 압도적이었다.

연료별로는 디젤의 강세가 계속됐다. 디젤 차량은 지난해 13만3054대(67.8%)가 팔리며 선두를 유지했다. 가솔린은 5만5383대(28.2%)가 팔리는데 그쳐 처음으로 점유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하이브리드는 7736대(3.9%), 전기는 186대(0.1%)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입자자동차협회의 윤대성 전무는 “지난해 수입차 시장은 각 브랜드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중소형, 디젤 그리고 젊은 소비자차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 시작부터 ‘헛바퀴’

실효성 논란속 정비시간 산정 안돼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비업체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료를 홈페이지나 사업소 내 게시물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표준 정비시간 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임료는 정비사업자단체가 작업별 표준 정비시간을 산정해 소속 정비업체에 통보하면 여기에 업체별로 시간당 공임을 곱해 산출된다.

소비자들이 흔히 아는 정비 요금은 이 공임료

2 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제도

자동차 정비업체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비업체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료를 홈페이지나 사업소 내 게시물로 공개해야 한다.

에다 부품 가격을 더한 값이다. 업체별 부품가격은 지난해 8월 공개됐기 때문에 나머지 공임료만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정비업체별로 정비 요금을 파악해 비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위해 표준 정비시간 산정을 의뢰한 정비사업자단체는 3곳이다. 이 가운데 3급 정비업체가 가입한 전국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를 제외하고 1, 2급 업체가 소속된 나머지 2곳은 이날까지 표준 정비

시간 산정을 끝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업체와 수입차업체의 지정 서비스센터들은 공임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비사업자단체로부터 표준 정비시간을 받아야 이를 토대로 공임료를 산정해 전국의 현대·기아차 직영 정비업체에 게시할 수 있는데, 아직 표준 정비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수입차업체 관계자도 “딜러별로 홈페이지에 공임료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표준 정비시간 산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두 달 정도 계도기간을 가진 뒤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비 공임료가 공개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현대차·토요타 무상 보증기간 연장

10년 20만km까지

서비스·부품 교체



렉서스 CT 200h

하이브리드차 시장 선점 경쟁 치열

자동차업체들이 국내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부품을 무상 교체해주는 보증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적극적인 판매 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국토요타는 토요타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전차종에 대해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의 무상보증을 기존의 5년간 8만km에서 10년간 20만km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 차종은 CT 200h(해치백), ES 300h(중형세단), GS 450h(중형 스포츠 세단), NX 300h(컴팩트 SUV), RX 450h(대형 SUV), LS 600hL(플래그십 세단) 등 렉서스 브랜드 6개 차종과 프리우스, 캠리 하이브리드 등 토요타 2개 차종이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무상보증 확대는 세계 최고의 하이브리드 기술력과 오랜 기간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토요타와 렉서스 하이브리드를 타볼 수 있도록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현대자동차도 ‘트러스트 하이브리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무상보증 서비스를 10년간 20만km로 늘린 상태다.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10년간 20만km 무상 보증 서비스 제공하고, 중고차 값도 신차 구입 1년 뒤 75%까지 보장해준다. 각 업체가 새해부터 판매 공세에 나선 것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월1일부터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현대차의 I.F쏘나타, 토요타의 프리우스, 프리우스 V, 렉서스의 CT200h, 포드의 퓨전 등 5개 차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후 취득·등록세 감면(최대 140만원)을 비롯해 다양한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혜택에 힘입어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 출시 첫 달 832대가 팔리며 판매 순항을 보이고 있다.

한국GM, 브레이크호스 결함 3개 차종 10만대 리콜

한국GM이 브레이크호스 제작결함 때문에 크루즈와 라세티프리미어, 올란도 등 3개 차종 10만대를 5월부터 시정조치(리콜)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제작 과정에서 전륜 브레이크호스가 비틀린 상태로 조립돼 브레이크호스에서 누유가 발생, 제동성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13일~2011년 5월24일 생산된 크루즈 등 3개 차종 9만9985대가 리콜 대상이다. 크루즈와 이전 모델인 라세티프리미어가 9만5480대며 올란도는 4505대다. 한국GM 고객센터(☎080-3000-50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눈길 안전운전, 스포츠 모드보다 감속이 도움

Q)자동변속기 차량 눈길 운전? 스포츠 모드로 하면 되나요?

A)스포츠 모드도 도움이 됩니다만 눈길 안전운전은 급브레이크 방지, 감속운전만이 정답입니다.

전문가 의견) “스포츠 모드 저단 운행시 안전한 눈길 운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포츠 모드 운행시 출발은 2단으로 천천히 하면 미끄럼 방지 및 원활한 출발 운행이 가능함

니다. 1단 출발은 미끄러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눈길에 조심운전을 한다면 굳이 스포츠 모드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나온 차는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저속 운전만 하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 저단 운행으로 장시간 운행시에는 연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 센터 제공>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울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완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앞(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완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완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 영산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환인→2억8천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100평)

①서구 치평동
중심도로
이면코너
(현대자동차위)

②주차장 고정완비
E/L 시설됨

③임대료
보3천 130만
(상무지구서
제일 저렴함)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픈)

① 기본 경매 강의
② 바로 실전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매주 수요일 10시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오전10시~오후 7시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① 서구 화정동 (토 372㎡,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② 동구 동명동 (토 838㎡,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9억5천

③ 장성군 삼계면 (토 1068㎡,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④ 동구 대인동 (토 105㎡,건 106㎡) 감평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⑤ 동구 계림동 (토 445㎡,건 1558㎡)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5천

⑥ 광산구 월곡동 (토 208㎡,건 250㎡) 감평가 1억4천3백 최저가 1억4천3백

⑦ 북구 두암동 (토 198㎡,건 512㎡) 감평가 3억9천8백 최저가 2억9천8백

⑧ 북구 운암동 (토 273㎡,건 247㎡) 감평가 2억4천4백 최저가 1억7천3백

⑨ 북구 중흥동 (토 133㎡,건 253㎡) 감평가 1억7천6백 최저가 1억1천3백

토지

① 서구 쌍촌동 쌍촌역 2분 대로면 최저 41억(1,170평)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